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체계」와 기계 형이상학*

이상명**

주제분류 근대 철학, 형이상학, 존재론, 기계론

주요어 실체, 개체, 물체, 물체적 실체, 참된 일체성, 힘, 생명, 자연 기계, 인공 기계, 자동 기계, 형이상학, 기계론

요약문

이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을 실체 개념 대신 기계 개념을 중심으로 읽음으로써 그의 형이상학을 기계 형이상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체는 근대 형이상학의 중심 개념이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철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실체는 근대 형이상학의 단절을 보여주는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기계’는 근대 형이상학적 사고를 이후에도 계속 이어주는 연결 개념이 될 수 있다. 기계 혹은 기계론적 사고는 현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내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을 기계 형이상학으로 보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라이프니츠가 실체 이론에서 설명한 ‘참된 일체성’과 ‘능동적 힘’이라는 실체의 조건들이 「새로운 체계」에서 소개되는 자연 기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또한 물체적 실체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세계의 구조가 자연 기계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 세계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도 그것의 논거로 제시된다.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기계론 체계는 실체적 형상 개념을 재도입하고 자연 기계와 인공 기계의 구별을 통해서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 있는 물체’ 혹은 ‘유기체’를 자연 기계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형이상학 체계에서 실체란 궁극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살아 있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8791)

** 숭실대학교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로써 살아 있는 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존재이며 생명의 원리는 이러한 존재의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1. 머리말

서양 근대 형이상학의 중심 개념이 ‘실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다. 합리론을 대표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그들이 정의하고 설명한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형이상학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대개 그들의 형이상학을 실체 형이상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철학적 노력은 실체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실체 개념에서 서로 다른 그들의 철학이 전개된다. 그들에게 형이상학은 제일 철학이었고, 실체 개념은 그 제일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었다. 라이프니츠도 이점에 있어서 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의 형이상학 저작들도 주로 기존의 실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실체 개념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기 저작에서 실체 개념이 모나드 개념에 수렴하면서 모나드 형이상학이라는 체계가 나타났는데, 이로써 라이프니츠도 근대 실체 형이상학의 면모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체 형이상학은 근대 이후 단절되었다. 17세기 절정에 이르렀던 실체 형이상학은 이미 18세기부터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고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는 형이상학의 종말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어떤 철학자도 ‘실체란 무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근대의 실체 개념은 고대 철학이나 중세 스콜라 철학을 근대 철학과 이어줄 수는 있었지만 근대 형이상학을 현대에 이어주지는 못한 개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실체 개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념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계 개념이다. 더군다나 ‘기계’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을 기계 형이상학으로 볼 수 있다면, 근대 형이상학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대 유럽에서 기계론을 주장하거나 기계론 철학 혹은 입자(corpuscular) 철학에 동의했던 학자들은 보일, 홉스, 가상디, 데카르트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 그 중에서도 질료형 상론을 거부했고 목적론적 자연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따라서 근대 기계론은 전 자연이 원인과 결과의 상응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으면서도 목적인을 배제한 채 작용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고 물질세계의 모든 것을 크기, 형태, 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근대 기계론 철학자들은 원자, 진공, 운동, 무한 분할 가능성 등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고, 각각의 이슈마다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그들의 견해 차이는 주로 물체 일반의 개념과 운동의 기원, 물질의 무한 분할 가능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때 저 개념들은 단순히 생리학적(physiological) 개념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¹⁾

사실 근대 철학에서 기계 개념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근대 기계론에서 기계 개념은 주로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나 은유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 대표적인 기계 모델로 시계가 언급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계가 어떤 구체적인 존재를 가리키기 시작한 것은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bête-machine)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데카르트가 영혼이 없다고 믿었던 동물들의 신체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은 그

1) Garber, "Remark on the pre-history of the mechanical philosophy", 6-8쪽.

당시 기계론의 진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 기계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선된 기계론을 제시한다. 그것은 실체의 본성에 대한 개선이었고 더불어 기계 개념의 확장을 통한 존재론적 구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라이프니츠의 개선된 기계론이 궁극적으로 모든 자연적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기계 형이상학이라고 본다.

이 구상은 라이프니츠의 일련의 저작들에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형이상학 논고』(1686)와 아르노와의 서신(1686-1689)에서 시작되어 「제일철학의 개선과 실체 개념에 관하여」(1694) 그리고 「새로운 체계」(1695)를 거쳐 「생명 원리와 플라스틱 자연에 대한 고찰」(1705), 「모나드론」(1714)까지 이어진다. 라이프니츠에게서 기계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있으려면, 기계 개념이 실체 개념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체를 통해서 제시하는 세계의 구조가 기계 혹은 자연 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그런 세계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라이프니츠가 실체 개념과 형이상학을 논하는 저작에 거의 항상 기계 혹은 자연 기계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라이프니츠의 기계 형이상학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과 실체 개념이 체계를 갖추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형이상학 논고』(168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작과 연결되어 있는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실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서신텍스트를 중심으로 실체 개념을 살펴보겠다.

라이프니츠가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실체 개념은 개체적 실체와 물체적 실체에 대한 논의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우선 실체는 개체이고 이 개체의 개념은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체적 실체는 그에게 속하는 모든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주어이다. 또한 모든 개체적 실체는 자신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 전 우주를 표현하고, 자족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활동에서 다른 실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리 혹은 원인을 자신의 본성에 가지고 있다.²⁾ 라이프니츠는 이런 실체의 성격을 아르노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실체 각각은 자신의 본성에 ‘자기 활동의 연쇄에 관한 연속성의 법칙’(legem continuationis seriei suarum operationum)을 포함하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한다.”(서신, 311-312)고 요약하고 있다.

아르노와의 서신에서 물체적 실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앞서 설명한 개체적 실체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연장을 본성으로 하는 데카르트의 물체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체가 무지개와 같은 단순 현상이 아니고 또한 돌무더기와 같이 우연적으로(par accident) 또는 집적에 의해서(par aggregation) 하나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라면, 물체는 연장으로 구성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실체적 형상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영혼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물체에서 가정해야 합니다.”(서신, 128)

2)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125, 144, 147, 253쪽. 이 논문에서 이 서신 텍스트의 출처 제시가 빈번하기 때문에 『서신』으로 줄여 쓰고, 직접 인용의 경우 본문주로 (서신, 쪽수)로 표시한다.

데카르트처럼 물체의 본성을 연장으로 볼 경우, 물체는 실체일 수 없다. 개체적 실체가 갖추어야 하는 실체로서 본질적인 특징들을 갖추지 못한다. 연장으로부터 어떤 능동 작용도 변화도 도출할 수 없고 연장은 단지 현재 상태를 표현할 뿐 실체의 미래와 과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물체적 실체는 물체 일반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물체 개념 사용을 보면, 물체를 물질로 보는 경우와 물체를 실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물체는 물질(matière) 혹은 물질덩어리(masse)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연장되어 있고,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한하게 분할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물질 혹은 물질덩어리는 경계 지어진 연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정된 형태를 지정할 수는 없다.⁴⁾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물체는 “집적에 의한 존재”이며, 그것을 하나라고 하더라도, 단지 “우연에 의한 일체” 또는 “집적에 의한 일체”라고 말한다.⁵⁾ 이런 경우 물체는 실재적 존재라 할 수 없고 순수한 현상, 기꺼해야 ‘잘 정초된 현상’(phenomena bene fundata)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물체 개념은 그 당시 데카르트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언급한 것이지 라이프니츠가 이 물체 개념을 견지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가

3) 같은 책, 151쪽. 이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아니지만, 개체적 실체와 물체적 실체가 같은 실체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다른 실체로 보는 쪽에서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에 따라 개체적 실체가 정신 혹은 영혼을 가리키고 물체적 실체가 물질 혹은 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이상학 논고에서도 아르노와의 서신들에서도 이 둘은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니다.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실체 이분법의 용어, 즉 정신과 물체, 영혼과 물질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견해는 이 둘이 분리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물체적 실체 개념은 개체로서의 실체, 즉 개체적 실체가 가지는 특징들을 기준으로 볼 때, 물체의 본성을 연장으로 보면 물체는 개체적 실체로서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적 형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같은 책, 162, 198쪽 참조)

4) 같은 책, 247쪽, 272쪽.

5) 같은 책, 159, 194, 213, 221, 222쪽.

의도한 것은 이런 개념 하에서 실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현상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물체를 그대로 두지 않고 물체에게 실체의 지위를 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말이다. 이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물체의 현실적 무한 분할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물체는 부분으로 구성된 집적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물체의 실재성도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이 갖는 실재성에 의존하며, 물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물체가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물체의 실체는 분할 불가능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영혼이라 부르든 형상이라 부르든 다르지 않다.”⁶⁾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스콜라 철학의 용어인 실체적 형상을 제도입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물체의 이 무한 분할 가능성이다.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따르면, 스콜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달리 실체적 형상은 물체에게 실체적 일체성(unité)을 주는 존재론적 기능을 가진다.

물체는 분해와 합성의 과정,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따르면, 물체를 계속해서 분해하면, 우리는 연장을 구성하는 수학적 점이나 에피쿠로스와 코르드무와의 원자에 이르게 된다. 그렇지 않고 물체가 현상 이상의 것이라면, 참된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에 이르게 된다.⁷⁾ 라이프니츠는 이미 이전에 수학적 점은 선과 같은

6) 같은 책, 150쪽. 분할 불가능성은 개체의 의미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번역된 우리말 ‘개체’와 ‘분할 불가능성’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뿐, ‘individuum’과 ‘indivisible’은 각각 ‘나뉘지지 않는 것’, ‘나뉘질 수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개체적 실체가 분할 불가능한 영혼만을 가리키고 이 영혼과 같은 개체적 실체가 물질적 물체와 함께 물체적 실체를 구성한다고 보기 쉽다. 아르노 또한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니츠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분명히 사그하는 정신만이 분할 불가능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같은 책, 249, 277쪽) 실제로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라이프니츠의 설명이 영혼의 이중적 역할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의 구조상 이런 이중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체적 실체도 물체적 실체도 영혼과 신체가 합일되어 있는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7) 같은 책, 194-195쪽, 214쪽.

연장된 것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⁸⁾ 다른 원자론자들의 원자(분할 불가능자) 개념은 그 원자들이 유한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현상적 일체성이 아닌 참된 일체성을 가진 실체들만이 물체적 실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체는 참된 일체성을 요구한다. 사실 모든 집적에 의한 존재는 참된 일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를 가정한다.”(서신, 213)라고 말한다. 라이프니츠가 제시하는 참된 일체성이 필요한 이유는 일체성이 없다면, 다수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의 존재가 아닌 것은 실체 하나의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공리로 간주하고, “하나의 존재가 없는 곳에는 다수의 존재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서신, 215)라고 말한다. 참된 일체성은 다수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물체적 실체의 논리적 전제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전제라고 본 것이다. 이 실체의 참된 일체성은 이후 모나드 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견해가 된다.⁹⁾

물체적 실체 개념에서 실체적 형상의 역할은 다수의 집적체인 물체에 참된 일체성을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물체적 실체에서 능동성의 원리인 엔텔레키의 역할도 한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것이 실체라면, 자신 안에 운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에 따르면, 실체는 자기 활동의 근거를 다른 실체로부터 얻을 필요 없이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실체의 현재 상태는 이전 상태의 직접적 결과이고 각각의 실체는 자신 안에 자기 활동의 직접적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라이프니츠는 물체적 실체가

8) 이 증명에 대해서는 Pacidius philaleti: A VI, 3, 550쪽; De materia, de motu, de minimis, de continuo: A VI, 3, 469쪽, 그리고 이상명(2012), 61-85쪽 참조.

9) 이후의 저작인 드 볼더(de Volder)와 데 보스(des Bosses)에게 보낸 서신에 등장하는 ‘합성 실체’(substantia composita)라는 개념은 물체적 실체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인데 라이프니츠는 이 합성 실체를 구성하는 것이 모나드라고 설명한다. 물체적 실체가 모나드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연 기계 개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Fichant(2003), 16-28쪽 참조.

이런 운동의 원인, 변화의 원인으로 힘(force) 혹은 능동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도 연장이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가상적인 것, 현상에 불과하며, 운동의 주체가 무엇인지 밝힐 수도 없고, 따라서 운동의 실재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의 운동량이 아니라 힘의 양이 보존된다고 논증하는 것도 자연에서 보존되는 것이 가시적 현상이 아니라 물체적 실체의 근원적인 운동 원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힘 개념과 관련해서 동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제시했고 그곳에서 힘을 실체의 본성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그는 물체적 실체의 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실체적 형상 개념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키 개념을 사용한다.¹²⁾ 이것은 자신의 능동적 힘(vis activa)이 스킨라 철학에서 말하는 가능태로서의 능력(facultas)과 달리 현실적으로 행동을 산출하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실체에는 이 행동하는 힘이 있고 사실상 이 힘으로부터 항상 어떤 현실적 활동성이 산출되기 때문에, 물체는 결코 완전한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³⁾ 이런 실체 개념 하에서 보면, 능동과 수동의 원리를 결여하는 것은 실체가 될 수 없다. 물질이 피투과성이나 저항력을 통해서 물체적 실체의 수동의 원리로 작동하면 그에 상응하는 능동의 원리가 있어야 하고 라이프니츠는 영혼과 같은 실체적 형상이 능동적 힘을 제공한다고 구성한 것이다.

이제 이런 물체적 실체 개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존재론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대표적인 물체적 실체다.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신체의 실체적 형상이다. 하지만

10) 『서신』, 245쪽.

11) 같은 책, 197, 217쪽.

12) 같은 책, 273, 283쪽; “Specimen dynamicum”: GM VI, 234-254쪽.

13) “De primae philosophiae emendatione, et de notione substantiae”: GP VI, 469쪽.

라이프니츠는 실체적 형상을 가진 실체를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과 식물에게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물체적 실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⁴⁾ 그리고 실체적 형상이 분할 불가능하고, 소멸 불가능하고 생성 불가능한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¹⁵⁾ 즉 동물의 생성,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는 물체의 변형(transformation)일 뿐이다. 즉 생성은 이미 형태를 갖춘 동물의 증가(augmentation)와 펼침(developpement)일 뿐이고 죽음은 동물의 감소(diminution)와 접힘(enveloppement)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⁶⁾ 라이프니츠는 이 견해를 그 당시 스바메르담(Swammerdam, J., 1637-1680), 레이우엔훅(Leeuwenhoek, A., 1632-1723) 등의 생물학적 관찰과 해부학의 업적을 통해서 알려진 미세 생명체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의 구상은 연장은 물체의 실체를 구성할 수 없고, 참된 일체성과 능동적 힘을 주는 실체적 형상을 물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즉 단지 실체적 형상의 유무에 따라 물체가 하나의 실체이거나 아니면 단지 현상일 뿐이라고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체적 실체 개념을 통해서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의 구조를 그리고 있고 그것은 더 복잡하다. 그는 “집적에 의한 존재에게 어떤 실체적인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집적에 의한 존재들만 있는 사물들에게 어떤 실체적인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적에 의한 존재는 모두 참된 일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¹⁷⁾ 이것은 하나의 물체적 실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각 참된 일체성을 가지는 실체들로 구성되는 구조

14) 『서신』, 193, 199, 217, 249쪽.

15) 같은 책, 158, 283쪽.

16) 같은 책, 221, 267, 281, 283쪽.

17) 같은 책, 194, 201-202, 213쪽.

를 가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연장적인 것들처럼 ‘부분들 밖에 부분들’(des parties hors des parties)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사물이 있고 각각의 사물에는 또 다수의 사물이 있는”¹⁸⁾ 구조가 되며 물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부분들만큼 다수의 영혼이나 형상이 있는 구조가 된다.

물체적 실체 개념은 단순히 무엇을 물체의 실체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구조를 그리고 있다. 그는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은 영혼 있는 물체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의 수 혹은 적어도 형상의 수는 전적으로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끝없이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에서 너무 작아서 거기에 영혼 있는 물체나 적어도 근원적 엔텔레키를 부여받은 물체가 없는 부분, 혹은 (일반적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당신이 허락한다면) 생명의 원리가 없는 부분, 즉 완전히 일반적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물체적 실체가 없는 부분은 결코 지정될 수 없습니다.”¹⁹⁾

이 그림에 따르면, 모든 물질 입자에는 무한하게 많은 피조물의 세계가 있고 물체적 실체로 가득 차 있다. 말하자면 모든 물체적 실체들이 형상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물체적 실체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체적 실체이고 형상 혹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프랙탈’이라는 건축학적 구조로 알려져 있는 이런 구조에서 부분과 전체는 동질적이고 동형적이다.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에 따르면, 이런 세계 구조에서 실체는 다수의 사물들에 논리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전제된 참

18) 같은 책, 198쪽.

19) 같은 책, 271쪽. 이러한 세계 구조는 라이프니츠가 청년기부터 언급했던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같은 곳, 주석 195 참조. 또한 198쪽과 254쪽 참조.

된 단일성이고, 이 참된 일체성에 다수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혼이 있는 것은 참된 일체성에 다양성의 세계를 포함한다.”(서신, 220)라고 말한다.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은 그 당시 데카르트주의자들과 기계론 철학자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론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계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을 부정하고 자연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원을 찾기 어려운 형상(form) 개념도 물체의 형태(figure) 개념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아르노를 포함해서 이런 기계론 철학자들에게 라이프니츠는 이런 자신의 세계상이 신의 완전한 창조에 더 적합한 것이라고 하면서 “물체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형상이 없는 곳도 없다.”(서신, 286)라고 주장한다.

3. 형이상학과 기계론의 개선 그리고 기계 개념

실체적 형상이 제공하는 참된 일체성과 능동적 힘은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실체 개념의 핵심이다. 「제일철학의 개선과 실체 개념에 관하여」에서 라이프니츠는 사람들이 수학만큼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형이상학에서 사용하는 일반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흐릿하고 그 개념의 정의 또한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데카르트가 이 형이상학에서 약간의 진척을 이루었지만 그가 물체의 본성을 순수한 연장으로 보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영혼과 물체의 합일을 설명하지 못한 것은 실체 일반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²⁰⁾ 따라서 참된 일체성과 능동적 힘을 실체의 본성으로 보는 그

20) “De primae philosophiae emendatione, et de notione substantiae”: GP VI, 468-469쪽.

의 물체적 실체 개념은 제일 철학인 형이상학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이상학의 개선은 동시에 그 당시 일종의 자연철학이었던 기계론 철학의 개선이기도 하다. 라이프니츠는 일면 기계론의 설명력, 즉 물체를 크기, 형태, 운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계론이 더 근본적인 의문, 즉 물체가 왜 그런 크기와 형태를 갖는지, 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답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²¹⁾ 즉 그 당시 기계론적 세계관을 적극 수용하지만 문제점 또한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기계론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 철학과 기계론 철학에 정통했던 아르노에게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체의 원리에 대한 이 일반적 설명, 말하자면 형이상학적 설명에서 제가 어느 정도 스킨라철학을 찬성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개별 현상의 설명에서는 입자론 철학자들만큼이나 입자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개별 현상의 설명에서 형상이나 성질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은 항상 수학적으로 그리고 기계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론의 원리들 자체나 법칙들 또 힘의 원리들 자체나 법칙들이 단지 수학적 연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이상학적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²²⁾

개별 물체를 현상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의 설명 원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실체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물체의 연장, 형태, 운동은 개별 물체들의 일시적 현상일 뿐 물체의 실체를

21) *Confessio naturae contra atheistas*: A VI, 1, 490쪽. 기계론 철학의 물체 개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에 관해서는 이상명 (2009), 116-124쪽 참조.

22) 『서신』, 128-129쪽. 이와 유사한 주장이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162-163, 199, 217쪽 참조.

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물체의 실체를 수학적 개념인 연장으로 봄으로써 현실적이고 자연인 것으로서 물체의 존재론적 가치를 잃게 만들었고 그로인해 기계론의 적용 범위를 현상 세계에 제한했다는 것이 기계론 철학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반성이다. 입자 철학의 물체적 실체 개념이 불충분하고 상상적 근거에 기초한다는 라이프니츠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²³⁾ 따라서 실체적 형상의 재도입으로 형성된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은 데카르트나 기존의 기계론 철학에서 단지 물질적인 것 혹은 연장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물체 개념과는 전혀 다른 물체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물체 개념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자연의 구조를 확장된 기계론으로, 즉 현상세계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계론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물체’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계론의 차이를 보여주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그 당시 실체 이분법에 익숙한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라이프니츠가 물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아르노의 문제제기도 거기서 비롯된다. 라이프니츠도 의식하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물체라는 용어는 그의 개선된 형이상학, 확장된 기계론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니츠가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물체 개념을 말할 때, 상당 부분 기계 개념을 동반한다는 것, 즉 물체와 기계의 유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그 당시 기계론과 마찬가지로 신이 창조한 세계가 기계와 같은 것이고 또 물체도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세계 기계”(machine de monde), “물체 기계”(machine de corp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²⁴⁾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물체를 보는 두 관점 중 물질과 같은 물체 개념에서 현실적 무한 분할 때문에 집적체일 수밖에 없는 물체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집적에 의한 존재에 불과한 돌무더기’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고,

23) “Specimen dynamicum”: GM VI, 234-254쪽.

24) 『서신』, 211쪽, 209쪽 주석 138 참조.

이런 물체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현상적 일체성과 같은 기계적 일체성만을 갖는다고 말한다.²⁵⁾ 즉 실체적 형상이 없는 물체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물체 기계에 영혼과 같은 실체적 형상이 실체적 일체성을 부여하면, “영혼이 있는 기계”(machines animées)(서신, 161)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아르노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영혼이 있는 기계는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에서 결국 물체적 실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물체적 실체와 그것이 나타내는 자연의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물체’라는 용어 대신에 “영혼 있는 물체”(corps animé), “유기 조직을 지닌 물체”(corps organisé), “살아 있는 물체”(corps viva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은 결국 “영혼이 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라이프니츠가 아르노에게 보낸 실질적 마지막 서신에서 ‘영혼이 부여된 기계’라고 말한 자연 기계를 가리킨다.²⁶⁾ 이 용어들은 모두 이후 라이프니츠의 개선된 기계론 철학에서 ‘자연 기계’ 개념으로 대표된다.

4. 자연 기계와 생명 개념

라이프니츠의 저작에서 자연 기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좀 더 이전이지만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 그리고 그것의 구조적 특징과 존재론적 성격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1695년 발간된 「새로운 체계」(Système Nouveau de la nature et de la communication des substances, aussi bien que de l’union qu’il y a entre l’ame et le corps)이다.²⁷⁾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먼저 아르노와 서신을 통해 자신의 체계를 인정받은 바를 언급하고,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듯이 연장과 물질에서 참된 일체성

25) 같은 책, 157, 201쪽.

26) 같은 책, 286쪽.

27) Fichant(2003), 1-28쪽.

과 능동적 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분할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상적 원자”(atome formel)²⁸⁾가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실체적 형상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당대의 기계론과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라이프니츠가 보기에 근대 기계론 철학자들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문제였던 점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혼동한 것이다. 그들은 자연과 인공의 차이를 단지 크고 작음의 차이로 이해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차이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²⁹⁾ 그리고 나서 라이프니츠는 자연 기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연 기계는 실제로 무한하게 많은 유기조직을 가지고 있고,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우연적 사건에도 견디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자연 기계는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기계로 남아 있다. 더욱이 사람들이 이 자연 기계가 소멸되었다고 믿을 때, 그것은 그것이 받아들인 다양한 주름에 의해서 때로는 확장되고 때로는 수축되면서 농축되는 것처럼 변형될 뿐 항상 원래 있었던 동일한 기계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이 자연 기계에는 영혼 혹은 형상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자아’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하는 참된 일체성이 있다. 이것은 인공 기계나 단순한 물질 덩어리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³⁰⁾

28) Systeme Nouveau, GP VI, 478쪽. 「새로운 체계」는 1695년 6월 그 당시 학술저널인 *Journal des savants*, 294-300쪽에 출판되었는데, 이후 편집된 게하르트 판본(GP)에서는 이 ‘형상적 원자’라는 표현이 ‘실재적이고 영혼이 있는 점, 즉 실체의 원자’(un point reel et animé pour ainsi dire, ou un Atome de substance)로 바뀌어서 나타난다. 라이프니츠는 같은 저작에서 이 ‘형상적 원자’를 ‘형이상학적 점’(point metaphysique), ‘실체의 원자’(atome de substan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482쪽) 이러한 표현들은 이후 모나드 개념으로 이어지며 모나드의 성격을 예고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9) Systeme Nouveau, GP VI, 477-481쪽.

30) Systeme Nouveau, GP VI, 482쪽. 또한 자연과 은총의 원리, 3절: “이 물체가 일종의 자동기계 혹은 자연 기계를 형성할 때, 그것은 유기적이다. 자연 기계는 전

이 정의는 라이프니츠가 실체 개념에서 언급한 참된 일체성과 무한한 합성, 그리고 파괴불가능성이라는 실체의 조건을 자연 기계가 그대로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 속에 동일한 기계가 있는 구조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물체적 실체 속에 무한하게 많은 물체적 실체가 있는 구조를 자연 기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 기계의 변형을 주름의 수축과 팽창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 기계의 생성과 소멸이 신에 의한 새로운 창조가 아니며 완전한 파괴도 아니라는 것을 유비적으로 표현한 점 또한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을 따른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보아 「새로운 체계」에서 자연 기계가 아르노와의 서신에서 물체적 실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³¹⁾ 이러한 구도, 즉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에 대한 구상이 기계론의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 기계 개념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원리와 플라스틱 자연에 대한 고찰」(1705)이라는 후기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기계는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기계이기 때문에 파괴불가능하다. 작은 기계가 더 큰 기계에 무한하게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계론의 범칙만으로는 하나의 동물을 형성할 수 없다. 그것에는 아직 유기적인 것이 없다. 신적인 지혜로 조립된 물질은 본질적으로 어디서든 유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연 기계의 부분들에게는 무한하게 계속 기계가 있고 그 만큼 많이 유기적 물체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식으로 포함된다. 유기적 물체는 전성 없이는 결코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존속하는 동물을 결코 완전하게 파괴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물질의 부분은 없고, 유기적 물체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의 부분은 없다. 어디든 물체가 있는 것처럼, 어디든 영혼이 있고,

체에서뿐만 아니라 표시될 수 있는,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기계이다.”

31) GP III, 457. “나는 자연 기계만을 물체적 실체로 간주한다. 그것은 영혼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참된 일체성은 없을 것이다.”

영혼 그리고 동일한 생명체는 항상 존속한다. 결코 영혼 없는 유기적 물체는 없으며 영혼도 결코 모든 유기적 물체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³²⁾

기계 모델의 유비적 관점에서 보면, 인공 기계는 참된 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적 집적체들의 모델이고 자연 기계는 참된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집적체들의 일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 즉 부분으로 구성된 집적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정신의 사유 작용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이성의 존재’(ens rationis)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기계 속에 무한하게 많은 기계를 포함하는 자연 기계의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가지며 그것의 모든 하위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에서도 하나의 기계이며 이러한 구조는 무한하게 진행된다.³³⁾ 반면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기계는 단지 유한한 부분들로 구성될 뿐이다. 모든 물질에 영혼이 있는 물체가 없는 곳이 없다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모두 동일하게 기계인 자연 기계의 구조적 특징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이러한 구조의 차이에서 라이프니츠는 영혼이 있는 자연 기계를 참된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보지만 인공 기계는 다수의 부분들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물일 뿐 자연의 실재적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이 인공 기계와 자연 기계의 구별은 결국 아르노와의 서신에서 시작된 집적체와 실체의 구별이 「새로운 체계」에서 기계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며, 물체적 실체가 구성하는 세계의 구조가 자연 기계의 구조적

32) “Considerations sur les principes de vie, et sur les natures plastiques, par l’auteur du systeme de l’harmonie preétablie”, GP VI, 543-545쪽.

33) GP VI, 543. “자신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기계인 자연 기계는 파괴 불가능하다. 작은 기계가 더 큰 기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포함이 무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GP III, 356쪽 참조.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라이프니츠에서 자연 기계 개념이 실체 형이상학에서 사용되는 실체 개념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연 기계가 유기적 물체 혹은 유기체를 가리키는 기계론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유기 조직을 갖추는 것이 물체 세계에서 실체의 조건이자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기존의 기계론이 물질적 자연계의 외형과 운동을 설명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라이프니츠의 기계론은 자연의 실재적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형이상학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에서 자연 기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피상은 이 개념이 갖는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그것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연 기계가 자연의 작자인 신의 무한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가 다른 것을 감싸고 있는 유기조직들의 무한한 합성은 유기적 물체에만 허용된 것으로 그 물체에 속해 있는 영혼이 무한한 우주를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든 인공 기계와 달리 자연 기계는 기술적으로 파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동물의 변형이론으로 기존의 기계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유기체의 현존, 생성 현상 등을 이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³⁴⁾ 피상이 지적한 특징들은 균질적이지는 않지만 모두 라이프니츠의 자연 기계 개념이 그의 형이상학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실체 개념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본다. 자연 기계 개념은 「새로운 체계」에서 등장한 이후 드 볼더(de Volder), 데 보스(des Bosses) 등과의 서신에서뿐만 아니라 모나드론을 비롯한 많은 후기 형이상학 저작들에 등장한다. 이때 이 개념은 중기 저작에서 주요 주제였던 물체적 실체 개념을 대신하듯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물체적 실체 개념 사용은 줄어들는데, 물체적 실체가 구성하는 무한

34) Fichant(2003), 13-16쪽.

합성의 세계 구조는 유지되고, 물체적 실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자연 기계 개념을 통해서 같은 세계 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 사용의 변화 속에서 라이프니츠는 자연 기계 개념을 통해서 무엇보다 ‘생명’(vie) 개념을 부각시키고 항상 ‘살아 있는 물체’(corps vivan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다음 몇몇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물체는 스스로 영속하도록 자연으로부터 제정된 자동기계이다. 따라서 영양섭취와 증식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일체성의 원리 혹은 자동 기계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동기계 (혹은 자발적 행위자)이다. 그리고 자연 기계가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손해가 아닌가?”³⁵⁾

“나는 물체적 실체 혹은 합성 실체를 오직 살아 있는 기계, 즉 자연의 유기적 기계에만 한정한다.”³⁶⁾

“생명체의 모든 유기적 신체는 일종의 신적인 기계, 혹은 인공적 자동 기계를 무한하게 능가하는 자연적 자동기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는 그것의 각 부분에서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기계, 즉 살아 있는 물체는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무한에 이르기까지 기계이다. 이것이 자연과 인공의 차이, 즉 신적인 기술과 우리의 기술 간의 차이를 만든다.”³⁷⁾

“각각의 모나드는 특정한 물체와 함께 하나의 살아 있는 실체를 만든다. 따라서 사지 혹은 유기 조직과 연결해서 어디든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나드에는 무한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³⁸⁾

35) Tabula notionum praeparanda: A VI, 4, 633쪽. “Corpus vivens est Automaton sui perpetuativum ex naturae instituto, itaque includit nutritionem et facultatem propagativam, sed generaliter vivens est Automaton (seu sponte agens) cum principio unitatis, seu substantia automata. Et haec malim nam quid prohibet esse machinas naturae sui non propagativas?”

36) des Bosses에게 보낸 서신, GP II, 519-520.

37) 모나드론, 64절.

자연 기계가 무한하게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기계라는 말은 생명체의 유기적 신체는 그것의 가장 작은 부분도 유기적 상태이고, 또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생명은 생명체의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와 부분에 퍼져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것으로 구성된 모든 개체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한하게 많은 다른 살아 있는 것들로 구성되며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 된다. 자연 기계는 이러한 구조적, 존재론적 성격으로 인공 기계와 구별된다.

라이프니츠의 중후반 형이상학 저작들에서 자연 기계 개념과 함께 두드러지는 것은 이 살아 있는 존재와 생명 개념의 등장이다. 생명 개념이 이전 저작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체적 실체와 자연 기계가 주제화되고 모나드 개념이 등장하면서 ‘생명’과 ‘살아 있는 존재’는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에서 확실하게 주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³⁹⁾ 더욱이 주목할 것은 생명 개념이 물체적 실체, 자연 기계, 모나드를 특징 지으면서 실체의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기 저작에서 물체에 참된 일체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장된 영혼과 같은 실체적 형상이 후기 저작에서 자연 기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생명의 원리로 언급된다. 즉 형상의 역할을 하는 영혼이 유기적 물체와 결합해 자연 기계를 만들고 살아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구성한다. 이 생명은 자연 기계의 형상인 영혼이 제공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남긴 저작들의 특징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에 따라 표현과 용어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참된 일체성과 능동적 힘은 데카르트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실체 개념을 해명할 때 사용한 것이라면, 후기 저작에 주로 등장하는 생명은 모든 실체가

38) 자연과 은총의 원리, 4절.

39) Nuziante(2011), “Continuity or Discontinuity? Some remarks on Leibniz’s concepts of ‘Substantia vivens’ and ‘Organism’”, in: *Machines of Nature and Corporeal Substances in Leibniz*, 131-132쪽.

갖추어야 할 조건의 최종점일 수 있다. 후기 저작 중에서도 거의 최후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한 서신에서 라이프니츠는 실체 개념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 견해에 따르면, 진정으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이다.”⁴⁰⁾

자연 기계 개념을 통해서 생명은 확실하게 실체의 조건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자연 기계가 ‘살아 있는 개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구축한 형이상학에서 이런 살아 있는 개체는 전 자연의 퍼져 있고, 여기에는 단지 인간과 동물, 식물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도 속할 수 있다. 단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 라이프니츠는 이 생명의 원리가 모나드를 구성하는 지각과 욕구라고 말한다. 결국 자연은 살아 있는 개체, 신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 기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이런 자신의 존재론이 무한하게 많은 물체와 무한하게 많은 영혼을 전제하는 매우 풍부한 존재론이라고 한다. 다음 텍스트에서도 생명의 원리를 실체로 설명하는 그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읽을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전 자연에 퍼져있고 불멸하는 생명의 원리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물체들은 그것의 부분들의 분해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다수인데, 이것은 분할 불가능한 실체 혹은 일체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원리 혹은 영혼은 지각과 욕구이다. 생명의 원리는 유기적 물체에만 속한다. (나의 체계에 따르면,) 사실 물질의 조각에 하나의 유기적이고 영혼이 있는 무한한 물체가 없는 곳은 없다. 그런 것들 중에 나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도 포함시킨다.”⁴¹⁾

40) GP VI 624쪽.

41) “Considerations sur les principes de vie, et sur les natures plastiques”: GP VI, 539쪽.

5. 맺음말

현재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당시보다 그리고 그의 사후 약 200년 동안보다 더 많은 라이프니츠의 저작을 볼 수 있다. 그의 수많은 저작들이 세상에 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저 『모나드론』, 『변신론』, 『신인간지성론』과 같이 비교적 그 당시 알려진 텍스트만 가지고 그의 철학을 연구하고 논하던 시대와 다르다. 새롭게 연구되고 주목받는 그의 학문은 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의학, 등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니츠를 일반적인 철학사의 시각에 따라 ‘난해한 모나드 형이상학자’로 고정해 놓고 그의 형이상학을 근대적 실체 형이상학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인류 최후의 다중학자로서의 면모와 실제로 그가 철학과 과학의 역사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간과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이런 틀을 넘어설 수 있는 많은 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라이프니츠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체계에 나타나는 형이상학을 실체 개념이 아니라 기계 개념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형이상학을 일종의 기계 형이상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실체 이론에서 제시한 실체의 조건이 자연 기계 개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의 형이상학 체계에 따르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자연 기계이고 자연 기계는 그것의 기원과 구조적 특징에서 인공 기계와 구별된다. 자연 기계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이 무한하게 합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개체이며, 그것의 실체적 특징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라이프니츠가 본 자연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이다. 결국 라이프니츠의 기계 형이상학은 기존의 기계론보다 설명 영역을 넓혀 생명체의 현존과 증식, 생성과 소멸까지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체의 세계에 실체적 형상을 재도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형상은 능동적 힘의 근원이며 참된 일체성을 부여해 진정한 개체적 실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물체적 실체의 형상인 영혼은 유기적 물체와 결합해 자연 기계를 만들고 유기적 물체와 더불어 살아 있는 것을 구성한다. 라이프니츠는 근대 기계론의 설명 원리에 동의하지만 그 원리의 근원에는 자연 기계의 형상으로 생명의 원리가 있다고 믿었다. 물리적 자연의 근원적 원리는 생명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라이프니츠가 구축한 새로운 체계에서 살아 있는 것은 단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그의 형이상학은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건축학이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자신에게 있어 제일 철학으로서 형이상학은 세계의 “구조에 관한(*architectonica*)” 학문이라고 말한다.⁴²⁾ 이 논문에서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체계를 기계 형이상학으로 본 것도 그의 체계가 기계 개념을 통해서 세계의 건축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 당시 지성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인간에게까지 기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관념사의 전개를 보면 사상사는 새로운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748년 등장한 라 메트리(J. O. de La Mettrie)의 『인간 기계론』(*L'Homme machine*)이고 프랑스 유물론의 등장이다. 또한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일종의 기계로 보는 관점은 현재까지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더 극대화되는 실정이다. 이성의 계산 능력을 기계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컴퓨터의 등장, 현대 AI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신 질환을 신체에 물리적 변화

42) “De primae philosophiae emendatione, et de notione substantiae”: GP VI, 468 쪽.

를 일으키는 약물로 치료하는 등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 만큼 ‘기계’라는 용어는 근대와 현대를 잇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물체적 실체와 자연 기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유기적’ 혹은 ‘유기체’, ‘생명’ 혹은 ‘생명체’ 등의 용어들은 생명 과학의 역사에서 매우 이른 것이라 학술적 근거를 통한 개념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후에 미친 그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라이프니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생물학, 의학 등 현대 생명 과학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그렇다면 근대 실체 형이상학은 단지 철학의 역사에서만 단절되었을 뿐 철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다른 개념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특정한 철학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달리 생각해보거나 그런 개념의 변화에 주목해 보면 ‘영원히 계속되는 철학(philosophia perennis)’은 현대에도 계속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라이프니츠 원전

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 hrsg. von der Preussischen (aft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now Berlin-Brandenburg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eihe I-VII, Darmstadt, after Leipzig, now Berlin, 1923ff. (A VI(Philosophische Schriften), 권, 쪽수)로 인용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hrsg. von C. I. Gerhardt, 7 Bde., Berlin 1875-1890 (Nachdruck Hildesheim und New York 1978)(GP 권, 쪽수)로 인용

Philosophical Essays, Roger Ariew, Daniel Garber, Hackett Publ., 1989.

Schriften zur Logik und zur philosophischen Grundlegung von Mathematik und Naturwissenschaft, hrsg. & übers. von Herbert Herring, WBg., 1992.

Leibniz's New System and Associated contemporary Texts, R. S. Woolhouse, R. Francks ed., Clarendon, 2006.

『형이상학 논고』, 윤선구 옮김, 아카넷, 2010.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 이상명 옮김, 아카넷, 2015.

연구 문헌

이상명,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철학연구』 84, 2009, 115-140쪽.

_____, 「연속 합성의 미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에 있어 무한 분할의 문제」, 『철학』 111, 2012, 61-85쪽.

Garber, D., “Remark on the pre-history of the mechanical philosophy”, in: *The Mechanization of Natural Philosophy*, Daniel Garber and Sophie Roux (ed.), Springer, 3-26쪽.

철학탐구 제52집

Fichant, M., “Leibniz et les machines de la nature”, in: *Studia Leibnitiana*,
35, 2003, 1-28쪽.

Smith, J. E. H. & Nachtomy, O. (ed.), *Machines of Nature and Corporeal
Substances in Leibniz*, Springer, 2011.

Leibniz's "New System" and Machine Metaphysics

Lee, Sang Myung (Soongsil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Leibniz's metaphysics as a machine metaphysics by reading his metaphysics in focusing on the concept of machine instead of substance. The substance was the central concept of modern metaphysics, but it was not the main concern of philosophy since the 17th century. Thus, substance became a concept showing the break of modern metaphysics. But 'machine' can be a connection concept that keeps connecting modern metaphysical thoughts. For Machine or mechanistic thinking is also valid in modern times. This is why I want to see Leibniz's metaphysics as a machine metaphysics. In order to do this, I will show that the conditions of substance, 'true unity' and 'active force' described in Leibniz's substance theory, are applied to natural machines introduced in his "Système Nouveau".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structure of the world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 of corporeal substance is the same as the structure of the world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 of natural machine. Leibniz's new mechanistic system was constructed by reintroducing of the concept of substantial form and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machines. And he reveals that substance in his metaphysical system is ultimately life-bearing, living being, by calling 'living bodies' or 'organisms' as natural machines. Thus, it is revealed that living being is a constituent of nature and that the principle of life is an essential element of such being.

철학탐구 제52집

Key words: Substance, Individuum, Body, Corporeal Substance, True Unity, Force, Life, Natural Machine, Artificial Machine, Automaton, Metaphysics, Mechanism

이상명 E-mail: leesamy@ssu.ac.kr

투 고 일	2018년 10월 22일
심 사 일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	2018년 11월 11일